

#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Extrême-Orient)’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들 속에 얽힌 제국 시대 지성사의 네트워크\*

권윤경 공주대학교 사학과

이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서양서 장서의 구성을 파악하려는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서 그중 동양학과 관련된 프랑스어 도서를 주제로 삼았다. 이 도서들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서 이 장서에 얽힌 프랑스 근대 동양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사적 네트워크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식민지에 대한 지식이 ‘식민학’이라는 명칭하에 ‘과학적 학문’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전통적 동양학이 어떻게 재편성되는지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재편성된 동양학의 틀 속에서 어떻게 동아시아를 다루는 ‘극동학’이 탄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일본 간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학자, 기관, 저작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경성제대 장서 속에 침투했는지 살펴보고 이후 연구를 위한 새로운 지식사적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프랑스 동양학, 오리엔탈리즘, 식민학, 극동,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하부 오리엔탈리즘, 프랑스극동학교, 일불회관

## I. 서론: 경성제국대학 서양어 장서 연구조사에 대하여

1924년, 식민지 조선의 수도에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과 함께 부속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약 5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경성제대의 대학 도서관은 식민지 조선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문헌실에 소장 중인 이 경성제대 장서에는 12만 권에 달하는 서양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학을 나누는 학제와 언어 간의 장벽 때문에 이 도서들은 그동안 제대로 이용되지도, 조명받지도 못했다. 2014년 필자는 이 서양서 장서의 구성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조사팀에 참여했다. 연구책임자 외 4명의 연구

\* 이 연구는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원들은 역사서 중심으로 서양서를 언어별, 주제별로 나눠 그 구성을 대략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사 연구자인 필자는 여기서 독일어 장서(5만 5,489), 영어 장서(4만 3,526) 다음으로 수가 많은 프랑스어 장서(1만 4,256)를 담당했다.

필자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양서는 법학을 제외하면 문학, 철학, 역사, 사회사상 등 인문학 서적들이었다. 서양 제국들이 식민지에 세운 도서관의 경우 장서의 규모도 적고 그 구성 역시 대부분 실용서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경성제대가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표하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성제대의 교육과정은 보편적 교양주의를 표방했다(정근식, 2010). 또한 경성제대는 제국대학 체제의 일부로서 교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했고, 그 결과 특권적인 학문 연구 공간이 만들어져 많은 학술 서적들이 들어왔다. 애초에 연구조사팀은 경성제대 장서 구성에서 식민주의적 지식-권력 구조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장서 구성에 관여한 요소들은 사실상 매우 복잡하고 다양했다. 도서관의 구매 관행이나 구입 자금 입수 경로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경성제대 도서관의 서양서 장서는 당대의 서양 지성사를 매우 불균형한 형태로 반영하게 되었다(권윤경, 2015; 박홍식 외, 2014).

그러나 이 연구조사를 통해 구성원들은 이는 단지 기초조사일 뿐, 장서 구성에 관여한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을 절감했다. 우선 가장 절실한 것은 식민주의에 대한 더 폭넓은 비교사적 연구 관점이었다. 경성제대와 그 장서의 특성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민지 대학들과의 비교 연구, 그리고 일본의 제국대학 체제 내에서 다른 대학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기존의 비교 연구는 비교의 범주인 각 제국을 하나의 닫힌 단위로 간주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제국 정책과 사상은 제국의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교류되고 전유되었다. 새로운 비교 연구는 이러한 간(間)제국적(inter-imperial) 연결망을 복원함으로써 제국 정책 간의 병치 및 상호 참조 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sup>1</sup>

<sup>1</sup> Inter-imperiality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 경향을 종합한 Barth and Cvetkovski(2015)의 논문집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조사 팀원들을 어렵게 한 것은 장서의 내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였다. 분류기호나 제목만으로는 개별 서적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 특정한 주제, 저자, 조직이 장서 구성에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sup>2</sup> 단편적으로나마 이를 이해하거나 추측해 보려는 노력 속에서 연구원들은 책 한 권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성제대의 역사, 세기말 서구 지성사 및 제국 간의 인문학적 교류사에 이르는 지적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적 여행을 좀 더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하나의 대안적 지성사를 쓰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경성제대 장서 속에 얽힌 제국주의 시대의 지적 네트워크들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연구를 통해 법학 전문서들을 제외하고 경성제대 장서 속에 특히 두드러지는 몇 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식민주의, 전쟁, 고대사, 극동(동아시아) 등이 포함된다. 2015년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다음 연구조사는 그중 동아시아에 관한 장서에 주목했다. 경성제대 서양서 장서에는 16세기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방대한 동아시아 여행기와 동양학 연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상당수가 귀중본으로 분류되는 18세기 이전 출간된 고서들이다. 연구자들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로 된 동아시아 관련 도서들을 분담하여 경성제대 장서에 얽힌 동서양 오리엔탈리즘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밝혀내고자 했다.<sup>3</sup> 그 중 이 논문은 프랑스어로 된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진행 과정이 그대로 연구 내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은 통상적인 학술 논문들과 다소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첫 연구조사에서 필자는 동아시아에 대한 수많은 프랑스어 자료들을 발견했지만, 프랑스 동양학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특정 책이나 저자들이 왜 거기에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책들이 퍼즐의 한 부분이라면 큰 그림을 몰랐던 당시 필자에게 그 조

<sup>2</sup> 부속 도서관은 서양서에 대해 고유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1934) 참조.

<sup>3</sup> 여기서는 편의상 Orientalism을 두 가지로 번역하겠다. 동양에 관한 학문 자체를 일컬을 때에는 동양학이라고 말하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동양학을 포괄하는 지식-권력 체계를 가리킬 때에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표기하겠다.

각들의 의미는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프랑스어 도서의 경우 독일어나 영어 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어서 전수조사가 가능했지만 정량분석만으로는 여기서 발견되는 패턴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에 그칠 따름이었다.<sup>4</sup> 이 때문에 이번 연구조사에서 필자는 경성제대 도서들의 형성에 결부된 제국주의 시대 오리엔탈리즘 형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내고 여기에 얽힌 제국주의 지식 구조의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았다. 그 속에 경성제대 도서들을 위치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장서의 구체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이 도서들 속에 얽힌 책, 저자,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밝혀가며 주제를 점차 확장시키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필자의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전간기까지 일본과 프랑스 간의 문화 교류, 같은 시기 프랑스 동양학의 재편과 ‘극동(Extrême-Orient)’학의 탄생,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을 포함하는 제국주의 시대 근대적 ‘식민학(Sciences coloniales)’의 체계화로 뻗어 나갔다. 이에 따라 이 연구조사의 결과물이 될 단행본의 내용은 제국주의 시대 오리엔탈리즘의 역사에 관한 전반부와 이에 기초하여 실제 경성제대 장서들의 성격을 규명하는 후반부,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 논문은 그중 전반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위에서 이야기한 지적 여정을 거꾸로 돌려 프랑스 동양학의 전체 구조로부터 단계적으로 ‘줌인(zoom-in)’하여 경성제대 장서의 특정 저자와 책까지 되짚어 가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다음의 두 번째 장에서는 우선 제국주의 시대에 근대 학문 체계가 성립되면서 그 속에서 식민지에 대한 지식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 즉 프랑스 ‘식민학’의 등장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이 속에서 전통적인 동양학 역시 재편되는데, 여기서 ‘동양’으로부터 ‘극동’이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조망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세기 말 이후 전간기까지 일본에 대한 프랑스 측의 연구 및 프랑스와 일본 간의 학문적 교류 양상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 얽힌 책, 협회, 저자들이 경성제대 장서 속에 다수 반영되어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구매 장부인 원부를 통해 이러한 책들이 부속

<sup>4</sup> 이러한 문제는 훨씬 더 큰 모집단을 가지고 만든 단국대학교 프랑스 동아시아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에도 해당된다. 박성진(2017) 참조.

도서관에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일반적인 양태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경성제대 장서를 매개로 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끝을 맺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한국사와 동양사 학자들이 경성제대 장서를 활용하여 심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임을 밝혀 둔다. 서양사학자인 필자로서는 서양 지성사에 기초하여 책들 자체의 성격을 밝혀내는 것 이상으로 연구를 전개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프랑스 동양학과 극동학의 발달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이후 일본이나 한국의 동양학 전개 과정 연구에 유용한 비교사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성제대의 한국학 및 동양학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양사 연구가 이 연구들과 만나 서구, 일본, 식민지 조선 간에 펼쳐진 초국가적 지식의 역사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 II. 프랑스 동양학의 재정립과 '극동'의 탄생

1978년 출간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의 동양학은 제국주의 시대에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담론 체계라고 갈파한 후 동양학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동시에 사이드의 책이 동양학 연구에 필수적 전거가 되고 그 틀을 계승한 연구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점차 늘어났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사이드식 오리엔탈리즘 연구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팔레스타인 출신이기도 한 저자는 근동을 동양 전체로 환원시킴으로써 '동양'에 포함된 광대한 지역들 사이의 차이를 무화시킨다. 둘째, 미셸 푸코의 이론을 차용한 사이드의 저작은 동양에 대한 담론을 제국주의적 지식-권력 체계로 지나치게 '총체화(totalizing)'하고 있다. 셋째, 사이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주로 개별 작품들(많은 경우 서양 고전)에 대한 질적 분석에 입각한 식민주의 담론 분석에 치중되어 왔다.<sup>5</sup>

<sup>5</sup> 사이드의 틀은 여러 형태로 전유되고 변형되고 있다. 남아시아와 오리엔탈리즘에 관해서는

이러한 비판들을 생각할 때 경성제대 장서에 반영된 극동 동양학의 모습은 오리엔탈리즘 연구를 쇠신할 수 있는 여러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우선 그동안의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동양’이라고 규정된 지리적, 문화적 공간의 일부만을 다루었다. 사이드가 말하듯이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비서구 사회의 다양성들을 동질화하여 영속적인 ‘동양’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서양 제국주의가 세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양 여러 지역들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속에서 사이드가 말한 근동 오리엔탈리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극동 오리엔탈리즘이 부상했다. 사라진 과거에 중점을 둔 이집트학이나 인도학의 전통과 달리 동아시아의 “살아있는 문명(civilisation vivante)”은 서구 학자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기했다.<sup>6</sup>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들은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서구의 권력 의지로 총체화하지 않고 그 내부의 균열, 갈등, 이질성에 주목한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에 대한 학문이 식민권력의 자장 속에서 형성된 것은 맞지만, 식민주의가 그 결과물이나 실천적 전유 방식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에 대한 서방의 일방적 관개로 묘사한 나머지 그 속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했다. 일본 ‘동양사’의 탄생에 대하여 쓴 스테판 다나카(Stefan Tanaka)는 일본이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전유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대상은 단순히 추출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외부 담론의 일부분을 흡수하거나 그 자신의 목소리를 발달시킬지도—혹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지도—모르기 때문이다”(다나카, 2004: 46). 또한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식민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후 민족학과 연계되면서 현지의 엘리트에 의해서도 확대재생산되었다. 따라서 경성제대를 비롯한 제국대학이 보유한 서구 동양학 장서들은 잠재적으로 일본이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전유하여 ‘하부 오리엔탈리즘(sub-Orientalism)’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밝혀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Breckenridge and van der Veer(1993), 열대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는 Bowd and Clayton(1995) 참조.

<sup>6</sup> 사이드의 틀을 일본학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로는 Minear(1980), Mouer(1983) 참조.

또한 사이드는 푸코의 이론을 차용했지만 문학자로서 담론 분석에 주로 치중하여 제국주의적 지식-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하부구조, 즉 제도 및 학계의 네트워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담론 체계 내의 상호참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서구 세계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 제도적 환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되었느냐는 문제이다. 경성제대 장서 목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개별 동양학 고전들의 내용보다는 그 책들을 만들어낸 제도, 기관, 학자들의 상호연결망에 집중하여 경성제대 장서에 얽힌 동양학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서구의 동양학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각국마다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서구가 어떻게 자신의 초상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재'와 부합하느냐는 문제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언어별, 국가별 장벽에 가로막혀 분리된 채 수행되었다. 우리가 서구 한국학에 유독 관심이 많듯이 일본에서는 서구 일본학을, 중국에서는 서구 중국학을 연구했다.<sup>7</sup> 그러나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으로의 전문적 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현상이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의 동양학 관련 학제나 학자들의 경력을 보면 극동, 더 나아가 동양은 보통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되었다. 무엇보다 오리엔탈리즘은 그 자체로 지식의 지정학적 배분 체계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미지는 전체 구조 속에 위치시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극동 동양학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학문들이 파생된 경로를 보겠다.

우선 프랑스 극동학의 역사를 간략히 개관할 필요가 있다.<sup>8</sup> 프랑스의 중국학(sinologie)은 주로 16세기부터 중국으로 간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들이 프랑스에 소개되었다. 경성제대 도서관에도 3개 국어로 소장되어 있는 뒤 알드(J.-B. Du Halde) 신부의

<sup>7</sup> 이에 대한 박성진의 비판 참조. 박성진(2016), 156쪽.

<sup>8</sup> 19세기 이전, 특히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대해서는 국내에 선행 연구와 번역본이 풍부하다. 한국 연구로는 이동윤(1980), 송덕호(2000), 박상수(2003) 외 박성진(2016)의 각주들 참조. 동양 사상이 유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문젤로(2009), 클라크(2004) 참조. 프랑스 한국학에 대해서는 블레스텍스(2001)과 박성진(2016) 참조. 앞으로 등장하는 프랑스 동양학자들의 경우 프랑스동양학자사전 참조(Pouillon, 2008).



중국 여행기는 유럽인들에게 중국학의 입문서나 마찬가지였다(Du Halde, 1735). 17세기에는 이 ‘선교사 중국학’과 함께 프랑스 특유의 ‘국가 동양학’ 전통이 시작되었다.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의 위신을 높이고 해외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양학을 지원했다. 이때 만들어진 유년언어학교(École des jeunes de langues)에서는 어릴 때부터 특수 교육을 받은 통역전문가들을 양성했는데, 이 학교는 나중에 동양어 관련 문헌학과 언어학의 본산인 동양어학교(É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가 되었다.<sup>9</sup>

계몽주의의 시대인 18세기에는 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성행했는데, 이때는 주로 유럽의 기원 및 보편적 문명사를 탐구하기 위한 비교사적 시각에서 동방에 관심을 보였다.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사상가들 사이의 ‘중국숭배’는 잘 알려져 있다(송태현, 2013). 혁명을 거친 후 19세기 전반 프랑스 최고의 학술기관인 콜레주드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 중국학 강좌가 설치되었고, 아벨 레뮈자(Abel Rémusat)를 중심으로 중국 서적 번역과 출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10</sup>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동아시아에 대한 학문적 발달은 뒤쳐졌다. 19세기 후반까지도 프랑스 동아시아학은 여전히 동양어학교에서 훈련받은 어학자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아마추어 박학자들의 몫이었다.

19세기 말 독일의 영향 아래 프랑스 제3공화국이 근대적인 학문 및 교육 체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이 시기는 전 유럽적으로 근대 분과 학문 체제의 시작점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이때부터 유럽 제국들은 본격적으로 제국 팽창에 나섰다. 새롭게 정복한 방대한 지역들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또한 체계화된 식민지 통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식민지에 대한 지식을 예전처럼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식민지 현지에서도 각종 학술 협회들이 설립되는 한편, 식민 통치를 위하여 현지에 특화된 전문적 지식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이 흐름들이 만나 1880년대부터 아마추어 학자들이나 식민 관료들이 주로 담당했던 식민지 관련 학문을 과학적으

<sup>9</sup> 통칭 “랑그조(Langues O)”로 불렸으며, 지금은 국립동양어문화대학(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으로 남아 있다.

<sup>10</sup> 당시 프랑스의 중국학 관련 출간 목록은 송덕호(2000), 114-115쪽 참조.



로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식민학'이 정식화되었다. 이는 비단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었다. 벨기에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식민학', 그리고 영국에서는 'colonial studies'라는 명칭하에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다.<sup>11</sup>

이에 대한 생가라벨루(Pierre Singaravélou)의 연구는 1880년에서 1939년까지 프랑스에서 식민지에 관련된 지식들이 학제화되고 학자들의 직업적, 지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Singaravélou, 2009; 2011). 이때부터 식민지 관련 지리학, 역사, 경제학, 법학, 비교사, 언어학, 인류학, 심리학 등이 고등 교육 체제 내에 자리 잡았다. 식민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coloniales)나 식민학교(Ecole coloniale)처럼 식민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신설되었다. 대학에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석좌교수직이 생겨나면서 제국주의 로비 집단들의 입김도 거세어졌다. 대표적으로 식민지연합(Union colonial)은 파리 소르본 대학 교양 교육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1893년부터 190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400여 회의 식민지 관련 학회가 열렸다(Singaravélou, 2011: 73). 이뿐만 아니라 제국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 학회 조직들 역시 속속 생겨났다. 전간기에 이르면 식민학은 지중해에서 극동까지 퍼진 각종 협회와 기관들, 이들을 연결하는 파리의 대학과 연구소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학 역시 재편되었다. 19세기 학문적 오리엔탈리즘의 주된 사명은 유럽 문명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었고, 이 거대한 기획을 통해 각 제국들은 서로 국제적 위신을 겨뤘다. 프랑스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에 프랑시아테네학교(Ecole française d'Athènes)(1846), 프랑스 로마학교(Ecole française de Rome)(1875), 프랑스카이로고고학협회(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orientale au Caire)(1880)를 연이어 건립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아시아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경쟁이 재개되자 학문적 경쟁관계도 덩달아 재점화되었다. 특히 독일 동양학이 문헌학과 비교언어학을 통해 학계를 선도하자 국제적 경쟁이 가열되었다. 가장 먼저 창설된 영국의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를 본떠 프랑스도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를 창립했다. 동시에 초국

<sup>11</sup> 프랑스 식민학에 대해서는 Singaravélou(2011), Tilly(2011), Conklin(2013) 참조.

가적인 네트워크와 학문적, 인적 교류 역시 늘어나서 국제동양학자회의(Congrès internationaux des Orientalistes)(1873-)와 동양학회연맹(Fédération des Sociétés orientales)(1919)을 비롯한 국제 조직들 역시 출범했다. 1890년에 창간된 『통보(通報; *Tounag Pao*)』는 네덜란드에 근거지를 둔 가장 오래된 국제 중국학회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 양국에서 편집진을 맡았다.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 에두아르 샤반느(Édouard Chavannes), 폴 펠리오(Paul Pelliot), 폴 드미에빌(Paul Demiéville) 등 『통보』의 편집진 모두 프랑스 중국학계의 거물들이었다.

동양학 연구가 재편되면서 그 속에서 극동 연구 역시 새롭게 태어났다. 제국주의 시대 이전까지 ‘아시아(Asie)’는 ‘동양(Orient)’과 혼용되거나 주로 인도를 지칭하는 모호한 지리적 개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동아시아의 중국문화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중국계 동양(Orient chinois)’, ‘동양의 인도(Indes orientales)’, ‘동양 아시아(Asie orientales)’, ‘중국권(monde sinisé)’ 등이 혼용되어 쓰였다. 그러나 1860-70년대부터 중국, 일본, 코친차이나에 대한 상업적 관심이 증폭되고 유럽 제국주의가 아시아 전역으로 팽창하면서 19세기 말에 되면 지리적 개념의 분화 및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펠레티에(P. Pelletier)의 표현에 따르면 이때 동양의 ‘삼분할’이 이루어져 ‘근동(Proche-Orient)’, ‘중동(Moyen-Orient)’과 나란히 ‘극동’이 탄생했다(영어권에서는 Far East)(Pelletier, 2011: 505). 중국, 일본, 한국 및 인도차이나를 포함한 이 신조어는 19세기 말이면 각종 극동 여행기를 통해 일반화되었다(Siary, 2001).

극동 동양학은 이집트학이나 인도학과 대비되어 종종 “살아있는 동양학(orientalisme vivant)”이라고 불렸다. 동아시아의 “살아있는 오래된(anciens et vivants)” 문명들은 기존 오리엔탈리즘의 틀에 잘 들어맞지 않았다. 극동은 유럽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지도 않았고, 사이드식의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이야기 하듯 퇴락한 채로 과거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또한 극동 연구는 프랑스의 또 다른 제국주의 팽창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연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자 기록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경우 인류학, 환경학, 동식물학, 열대의학과 같은 현장 조사 중심의 식민학이 발달했던 반면, 극동에는 풍부한 문헌 전통이 살아있었다. 문헌학의 전통은 극동을 연구하는 동양학자들을 과거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현재와의 연결성에도 눈감을 수가 없었다. 사이드가 말한바 식민주의 담론은 ‘동양’을 열등성의 공간으로 동질화하고자 했지만 실제 학문적

실천에서는 이질성, 다양성, 모호성이 팽배했다.

식민학에서도, 그리고 동양학 전통에서도 극동 연구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 극동 연구는 오랜 중국학 전통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새롭게 정립된 식민학의 일부이기도 했다. 19세기 말까지도 여전히 어학 전문가들을 배출하며 동양학을 선도하던 동양어학교는 이후 파리의 대학과 연구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새로운 극동학의 중심은 파리의 콜레주드프랑스, 금석학문학아카데미(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 lettres; 이하 AIBL), 고등연구실천원(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이하 EPHE) 등이었다(Laurence, 2004). 극동학자들이 특히 종교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시 정치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었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가톨릭 교회에 대항한 강력한 반교권주의 투쟁에 매진한 프랑스 제3공화정은 종교의 탈신비화를 위해 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종교 비교사를 장려했다. 1886년 설립된 EPHE의 5부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존재했으며, 이후 종교학에서 출발하여 동양학의 중심지가 되었다(Beillevaire, 1992: 125).

그러나 동양학의 거처는 비단 파리만이 아니었다. 해외무역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들이 식민지 로비 집단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동양학을 유치했다. 대표적인 예가 비단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리옹(Lyon)이다. 리옹 대학에서는 중국학자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교수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강좌를 모두 개설했다. 리옹 출신의 사업가 에밀 기메(Émile Guimet)는 극동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예술 작품들을 모아 이곳에 극동 미술관을 세웠다. 나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리로 이전한 기메 미술관(Musée Guimet)은 지금도 극동 미술의 메카로 불린다. 1921년 리옹 대학은 중법대학(里昂中法大学; Institut franco-chinois de Lyon)을 설립하여 미래에 혁명가가 될 중국의 법학도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학문적 주도권은 파리의 국립기관들이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리옹의 사업가들과 로비 집단들이 앞장섰던 이 “지역 제국주의(local/municipal imperialism)”는 극동 연구와 문화 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Laffey, 1969; 1975).

그 속에서 이후 반세기 동안 프랑스 극동학의 중심이 될 프랑스극동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이 탄생했다.<sup>12</sup> EFEO의 탄생에는 여러 역사

<sup>12</sup> EFEO에 대해서는 Singaravélou(2000), Rageau(1989), Filliozat(2010), 그리고 EFEO의 간행

적 흐름들이 얽혀 있었다. 우선 위에서 말했듯이 이전부터 프랑스는 문명의 기원을 밝히는 문제를 두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옛 문명의 중심지들에 학술 기관들을 세워 왔다. 경성제대 장서에 포함된 수많은 서양 고고학 발굴 자료들은 일본 역시 이러한 문화적 경쟁에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준다.<sup>13</sup> 이 전통을 이어받아 EFEO는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인도차이나의 고고학적 발굴과 유물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실상 EFEO 설립 전까지 인도차이나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다. 원래 프랑스의 동양학자들은 프랑스로부터 인도의 찬다나가르(Chandannagar)에 영국과 경쟁할 수 있는 현지 연구 기관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시도가 실패하면서 그 설립 계획을 EFEO가 물려받았다. EFEO는 인도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다(Singaravérou, 2000: 38).

당시에 EFEO의 설립은 동양학이 기존의 전통에서 이탈하여 새롭게 제도화된 인간과학의 틀 속에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이정표였다. 예전에는 아마추어 박학자들이 주로 문헌을 통해 동양을 연구하던 ‘연구실 동양학(orientalisme en chambre)’이 대세였다면, 19세기 말부터는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현지 동양학(orientalisme de terrain)’이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방문 학자들이 오래 머물며 현지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요해졌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부터 제국 정책이 프랑스 문화로의 ‘동화(assimilation)’에서 지역 엘리트들과의 협업을 통한 ‘연합(association)’으로 바뀌면서 현지 문화를 알 필요성이 증대했다.<sup>14</sup> 인도차이나의 식민 관료들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극동은 다른 식민지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897년 인도차이나 식민화가 완료되면서 총독이었던 폴 두메르(Paul Doumer)는 프랑스 지배하에 들어온 다양한 지역들을 묶어 프랑스로부터 인도차이나라는 하나의 ‘식민국가(État colonial)’로 만들어내고자 고심했다. 이를 위해 토양, 동식물, 기상 연구 기관들을

잡지인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BEFEO)에 실린 글들 참조. 특히 BEFEO 21호(1921)의 20주년 보고서 참조. ‘학교(ecole)’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EFEO는 교육 기능이 없는 순수 연구 기관이었다. 인도차이나 엘리트들이 일본 대학으로 계속 유출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1917년 현지인을 위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하노이 대학이 문을 열었는데, 이 대학은 의학부를 주축으로 실용 교육을 표방했다.

<sup>13</sup> 여기에 대해서는 2014년에 제출된 보고서(박홍식 외, 2014) 중 박재욱의 연구를 참조.

<sup>14</sup> 프랑스의 동화주의와 연합주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참조되는 연구는 Betts(2005).

만들었는데 그 막바지 단계로 역사, 언어, 종교, 예술 분야를 망라하는 학술기관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당시 EFEO를 설립하면서 총독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다른 제국들에게 동양학 연구가 뒤지는 “굴욕적” 상황을 통탄하면서, 인도차이나는 다양한 문명과 인종들이 모여드는 교차로와 같은 곳이므로 인도에서 극동까지 확장되는 연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BEFEO 8, 1908: 314-315).

이처럼 고대사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동양학의 과학화, 그리고 식민주의 정책의 필요성이 겹치지면서 EFEO가 설립되었다. EFEO는 경성제대의 프랑스로서 극동학 책들을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있다. EFEO의 역사는 극동학이 어떻게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동양학에서 파생하여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가지를 뻗었는지 잘 보여준다. 하지만 EFEO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역사학적인 접근은 매우 드물다. 동양학 기관들에 대한 제도사적 분석들은 오랫동안 개별 기관들의 연혁과 업적에만 치중하여 은연중 이 기관들의 ‘문명화 사명’을 정당화하는 기념비적 역사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Singaravélou, 2000: 17). 이에 반해 생가라벨루의 저작은 식민학의 관점에서 EFEO를 문제적 기관으로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제도, 조직,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복합적인 작동 방식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EFEO는 두메르 총독이 1898년에 만든 인도차이나 발굴 사절단에 기초하여 1900년에 설립되었다. 생가라벨루에 따르면 이 조직은 태생적으로 갖가지 모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EFEO는 인도차이나 총독부 소속의 식민 기관으로서 인도차이나의 중국어 식자층의 영향력을 프랑스로서 연구 기관으로 상쇄하고 프랑스의 문명화 사명을 고양하는 정치적 목적에 복무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EFEO는 파리의 AIBL와 EPHE의 날개하에 있는 연구 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독립성을 수호하고자 했다. 1대 원장인 루이 피노(Louis Finot, EPHE 소속)를 비롯하여 양 기관의 중국학 또는 인도학 전문가들이 EFEO 원장으로 부임했으며, 동시에 EFEO를 거처간 연구원들은 AIBL, EPHE, 콜레주드프랑스의 교수로 자리 잡았다.<sup>15</sup> EFEO는 동양학자들이 파리의

<sup>15</sup> 파리의 주요 학술 기관들과 EFEO 사이의 인적 충원 관계에 대해서는 Singaravélou(2000)와 부록 참조.

주류 학계에 안착하기 전 현지 경력을 쌓는 곳이 되었다. EFEO 구성원 중 17명이 EPHE 원장이 된 만큼 문헌학과 극동학에서 EFEO의 영향력은 파리 주류 학계에 안정적으로 과급되었다(Singaravérou, 2000; 162-177).

EFEO는 설립 때부터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겨냥했다. EFEO 구성원들 중 다수가 중국어를 기본으로 동양어학교의 동양어 학위를 여러 개씩 가지고 있어서 지역 분야를 확장시키기에 용이했다. 1901년 둔황 석굴 연구로 유명한 펠리오의 2차 중국 발굴 여행을 시작으로 이후 EFEO는 중앙아시아, 티베트, 몽골, 투르키스탄, 중국으로 떠나는 원정단의 베이스캠프가 되었다. 노엘 페리(Noël Peri)나 클로드 메트르(C. E. Maître)와 같은 현대 일본학의 선구자들 역시 이후 EFEO를 근거지 삼아 일본을 오가며 일본 연구를 시작했다. EFEO가 하노이에서 조직한 학림회와 학회들(Congrès des études d'Extrême-Orient)은 극동학의 새로운 조류들이 만나는 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EFEO가 식민지인들과 맺은 관계, 그리고 식민지에 미친 영향은 오리엔탈리즘의 모호하고 복합적인 효과를 잘 보여준다.<sup>16</sup> EFEO는 기본적으로 식민 총독부의 부속품으로서 아시아에서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사업에 동참해야 했다. 그 결과 EFEO는 1907년 하노이 대학을 비롯하여 인도차이나 내 다른 학술기관들 설립에도 참여했다. 인도차이나의 고대 문화와 현지 전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EFEO의 연구들은 역설적이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식민 정책에 부합했다. 프랑스를 통해 서구 문물을 접한 베트남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근대화를 통한 식민지 개혁을 요구했지만, 당시 식민 정부는 현지 지배 세력과 결탁하여 현상유지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 권력은 EFEO의 활동이나 그 결과물들을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EFEO는 자신의 학술잡지에 1908년 근대화를 요구하는 베트남 지식인 판 추 트린(Phân Chu Trinh)의 글을 수록했다가 검열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sup>16</sup> 식민주의의 이러한 역설적 효과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다. 아프리카 식민학을 연구한 톨리(Hellen Tilly)는 아프리카의 경우 식민학은 크게 보자면 제국의 도구였지만 이 구조 내에서 배양된 인류학자들 다수는 나중에 제국의 지적 지배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의 광대함이 학문적 도전을 유발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고안하고 서구의 인식론적 지배를 초월하는 아프리카 문화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Tilly, 2011).



(Singaravelou, 2000: 188-191). 또한 EFEO의 동양학은 이후 식민지 민족주의와 결합하였다. 서구 학자들의 작업이 사라진 고대 문명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현재의 열등성을 과거의 영광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욕망을 키웠던 것이다(Laurence, 2004: 47).

### III.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적 교류와 제국 간의 연결망

그렇다면 극동학 내에서 일본학의 추이는 어떠했을까? 미술사에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자포니즘(Japonisme)'이라 불리는 일본풍 예술이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예술적 자포니즘이 잦아든 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소위 '황화론(péril jaune; yellow peril)'이 득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는 드물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간기에 비로소 일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발달하면서 학문적 일본학(japonologie)이 성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양국 간의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협업이 두드러졌다. 1887년 도쿄에 설립된 프랑스어협회(Société de langue Française; 오늘날 Alliance Française의 전신)와 1900년 파리에서 결성된 프랑스일본협회(Société franco-japonaise de Paris)를 시작으로 많은 교류 단체들과 학술 잡지들이 만들어졌다. 도쿄대에서 법학 교수로 근무했던 조르주 아페르(Georges Appert)와 미셸 르봉(Michel Revon)과 같은 일본애호가들도 양국 간 교류와 소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베이베르(Patrick Beillevaire)가 만든 목록과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만든 서구의 동아시아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프랑스어로 출간된 일본학 관련 서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sup>17</sup> 먼저 개항 이후 러일전쟁(1904-1905) 전까지를 보면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여행기와 선교사들의 기록이 대부분이다가, 개항 이후 점차 역사, 문헌학, 언어학 출판물들이 늘어나

<sup>17</sup> Beillevaire(1993), Nihon Furansugo Furansu Bungakkai(1973), Garnier(1999) 및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http://weas.dankook.ac.kr/>(2017년 10월 현재 접속 불가능) 참조.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때에는 이후 일본학 발달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언어학 저서들이 주로 발간되었다. 그중 경성제대 장서에도 있는 레옹 파쥬(Léon Pagès)의 일불사전 번역본은 일본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파쥬는 사전 외에도 1900년까지 프랑스에서 발간된 일본 관련 연구서들을 집대성한 목록을 발간하기도 했다(Pagès, 1859; 1868).<sup>18</sup> 그러나 이 시기에 프랑스쪽 목록이나 경성제대 장서 양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자는 단연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이다. 중국학의 거두로 동양어학교의 언어학 교수였던 그는 프랑스 일본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동양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구세대 동양학자에 속하는 그는 개항 후 일본 영사관을 통해 구어를 접한 뒤 1886년부터 1914년까지 7권의 불일/일불 사전을 편찬하였다. 또한 그는 1873년 파리에서 제1차 국제 동양학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10개 분과를 극동학에 배분하여 전 유럽의 일본학자들을 불러 모았다(Muller, Leboulleux & Rothstein, 2014).

영국이나 독일보다 지체되었던 프랑스의 일본학은 이후 양국의 정치적 교류의 물살을 타고 빠르게 발전했다.<sup>19</sup> 위에서 언급한 페리와 메트르는 근대 일본학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데, 이들을 보면 일본학이 EFEO를 징검다리 삼아 기존의 동양학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페리의 경우 1889년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로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어를 습득한 후 1907년부터 EFEO에 들어가서 일본 불교와 극예술을 연구했다. 메트르 역시 1901년부터 EFEO에 들어서 일본 고대 불교 예술을 연구했다.<sup>20</sup>

일본에 대한 프랑스어 출간물 목록을 통해 전간기 동안 대략의 추이를 보자면 2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프랑스어 저작물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전 시대에는 주로 역사학, 문헌학, 종교학 등 전통적인 동양학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일본이 열강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의 현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일본과 미국, 만주국, 인도차이나 간의 관계 등 일본의 대외 정책에 대한

<sup>18</sup> 이하 언급되는 경성제대 장서에 소장되어 있는 개별 저서들은 논문 말미에 따로 모아서 목록을 만들었음.

<sup>19</sup> 프랑스 일본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향철(2001), Frank(1973), Origas(1985), Garnier(1999), 일본에 대한 유럽인들의 고착화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Siary(1993) 참조.

<sup>20</sup> 일본학과 EFEO의 관계에 대해서는 100주년 기념저작인 EFEO(2014) 참조.

책들이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는 일본 저자가 프랑스어로 프랑스 현지에서 발간한 책들이다. 일본학이 정착되면서 문헌학이나 언어학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이때부터 일본 예술, 특히 가부키나 노(能)와 같은 극예술과 문학에 대한 저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1937년부터는 대부분의 책들이 중일전쟁, 만주국, 일본의 대 인도차이나 정책과 미일 간 갈등 등의 외교적, 정치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Beillevaire, 1993).

다음으로 일본 쪽에서 보자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 계획에서 프랑스를 많이 참조했는데, 특히 프랑스 법체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1870~71년 프랑스가 신생 독일 제국에 패배한 후 근대화, 특히 군사적 전범으로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은 독일, 영국, 미국에 접근했으며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일본에 대한 이 나라들의 '잘못된 견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언론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Valliant, 1974; Davidann, 2007). 그러나 영일동맹이 깨지고 프랑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면서 다시 양국 사이에 접촉이 재개되었다.

이는 이후 일불회관(日仏會館; Maison franco-japonaise)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19년 프랑스 정부는 일본에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리옹 대학의 쿠랑을 단장 삼아 대학사절단을 파견했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리옹을 중심으로 한 인맥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쿠랑과 기메는 물론 나중에 일불회관의 주요 후원자가 될 토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역시 리옹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여기서 싹튼 계획은 1921년 시인이자 외교관인 폴 클로델(Paul Claudel)이 주일 대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일본문화 애호가이기도 했던 클로델은 양국 정부의 지원 및 일본 정·재계 엘리트와의 인맥을 활용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학문 교류를 위한 기관을 세우는 데에 박차를 가했다. 이때 클로델에게 적극 협력한 인물이 바로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였다. 프랑스애호가에 프랑스어에도 능통했던 그는 주변의 은행가들과 함께 일불회관 설립을 적극 후원했다. 그 결과 1924년 도쿄에 첫 번째 일불회관이 문을 열었다. 일불회관은 설립과 함께 재계뿐만 아니라 일본 황실의 후원도 받았다. 프랑스 생시르(Saint-Cyr)사관학교 졸업생이자 프랑스일본협회 회장이었던 간인노미야 고토히토(富院宮義仁) 친왕이 일불회

관의 명예회장이 되었다.<sup>21</sup>

이후 일불회관은 EFEO와 연결되어 프랑스 극동학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이 시대에 서구 동양학자들은 한 나라에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주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FEO와 일불회관이 연계됨으로써 학자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연구 깊이도 심화되었다. 일불회관에 거주한 최초의 연구원들의 면모를 보면 샤를 아그노에(Charles Haguenaer)나 드미에빌 등 EFEO를 거쳐 이후 일본학의 거두가 될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저명한 인도학자로 프랑스 동양학의 최고봉에 있던 실뱅 레비(Sylvain Lévi)가 초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EFEO 설립에도 관여한 레비는 그전부터 일본 불교계와 긴밀하게 협력한 터였다.<sup>22</sup> 일본에 온 레비는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및 제국학사원의 협력을 받아 드미에빌과 함께 일종의 불교 백과사전인 『호보기린(法寶義林)』(1929-)을 발간했다. 이는 인도에서 실전된 불교 경전들을 중국과 일본 판본을 통해 복구하는 작업으로서 각국의 아시아학회들이 매진하던 국제적 협업의 일부였다.

이후 일불회관에는 과학자들도 지리학자들도 체류했지만 이 기관의 주된 정체성은 역시 동양학이었다. 기메 박물관의 조셉 아갱(Joseph Hackin), EFEO의 에밀 가스파르돈(Emile Gaspardone)과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ero) 등 후임 관장들의 면모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양학자였던 이들은 대체적으로 현대 일본보다 일본 고대 문화, 종교, 예술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sup>23</sup>

일본학을 위한 기관과 네트워크는 양국에서 점차 늘어났다. 1927년, 또 다른 일불회관이 이번에는 교토에 설립되었고(Wasserman, 2016), 일불회관의 정기간행물인 『일불회관지(Bulletin de la Maison franco-japonaise)』와 『일불문화(日佛文化)』 등이 창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29년 파리의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내에 일본관(Maison du Japon)이 설립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파리

<sup>21</sup> 일불회관에 대해서는 Frank & Iyanaga(1974), Shinobu, Ilan & France(2001) 및 일불회관 홈페이지(<http://www.mfj.gr.jp>)의 기관 연혁 및 관련 자료들 참조.

<sup>22</sup> 1888년 교토의 사찰인 니시 혼간지(西本願寺)로부터 두 명의 승려가 프랑스로 와서 레비로부터 배웠고, 이들 중 한 명은 프랑스로 일본 불교 경전을 발간했다.

<sup>23</sup> 일불회관 관장들 및 연구원들 목록은 일불회관의 홈페이지 참조.

의 주류 고등교육 기관과 학술 기관들에 일본학을 위한 자리가 생겨난 것이었다. 1925년 루브르학교(Ecole au Louvre), 1932년 EPHE 내에 일본학 분과가 설치되었고, 1934년 소르본 대학 내에 일본학협회(Institut d'études japonaises)가 설립되었다. 그 밖에 정기간행물로 프랑스에서는 *Japon et Extrême-Orient* 외 다수의 저널이, 일본에서도 *Revue française du Japon*, *France-Japon* 등을 비롯한 프랑스어 잡지들이 발간되었다(Marquet, 2014). 그러나 출판물에서 현대 일본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데 반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고대와 전근대 문헌학에 기초한 전통적 동양학에 머물렀다(Beillevaire, 1992; 128).

마지막으로 고문헌실 장서 목록에 자주 등장하는 프랑스 동양학자들의 지적 여정을 통해 프랑스 동양학의 특징을 되짚어 보겠다. 그들은 대부분 특정 문화권에 특화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혹은 동양 전체를 넘나들었다. 19세기 말부터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은 역사학은 국민국가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된 반면, 동양학은 사이드의 책이 갈파했듯이 동양을 본질주의적 정의에 따라 몇몇의 문화적, 종교적 블록들로 나누었다. 여기서 일본학이나 한국학은 인도나 중국 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드 로니, 아그노에, 쿠랑처럼 각국에서 일본학이나 한국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학자들은 사실 매우 초국가적인 학문적, 인적 교류망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 EFEO나 일불회관과 같은 기관들은 이들 동양학자들의 지적 여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프랑스 동양학의 거물인 알프레드 푸세(Alfred Foucher)는 위에서 분석한 동양학의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학문적 식민화(colonisation savant)'의 양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레비에게 사사한 후 인도에 가서 간다라 문명을 연구하다가 1901년 EFEO 설립 계획에 차출되어 하노이로 와서 EFEO 원장을 지냈다. 이후 파리의 학계로 돌아와 EPHE의 문학부에서 가르치다가 다시 1905년 EFEO 원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인도로 가서 영국과의 합동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1922년에는 헬레니즘 불교 미술의 흔적을 찾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고고학 조사팀에 참여했다. 1926년에는 스승인 레비의 뒤를 이어 일불회관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는 인도문명협회(Institut de civilisation indienne)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문헌학자, 고고학자, 미술학자로서 동양학계의 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관료이자 현장책임자로서 정부 관련 사업에 자주 차출되었다(Fenet, Filiozat & Aymerich, 2007).

드 로니, 레비, 푸세만큼 1급 학자는 아니지만 쿠랑 역시 흥미로운 예이다.<sup>24</sup> 프랑스에서는 주류 학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리옹 대학의 2류 중국학자로 망각된 쿠랑의 이름이 경성제대 장서에서는 자주 발견된다. 랑그조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쿠랑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통역관으로 동양에 파견되었다가 학자가 된 경우이다. 북경을 거쳐 1890~91년 조선에 서기관으로 부임한 쿠랑은 당시 조선 공사였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를 거들어 조선의 민속자료들을 수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3,821권의 조선 서적을 정리한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수집된 불교, 도교, 민속학 관련 장서들이 이후 기메 박물관 한국 장서의 기초를 이루었다. 쿠랑은 이때의 인연으로 1900년 파리 박람회 때 한국관 소개글을 쓰기도 했다(쿠랑, 2010).<sup>25</sup>

서울을 떠난 쿠랑은 다시 도쿄와 북경을 오가며 극동을 순회하다가 프랑스로 돌아가 파리의 학계에 정착했다. 그러나 당시 극동학으로 파리에서 교수 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때 리옹의 상업회의소가 중국 견직물 산업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도차이나 총독이었던 두메르의 지원을 받아 리옹 대학에 극동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쿠랑에게도 길이 열렸다. 리옹대 강사로 부임했다가 정교수가 된 쿠랑은 여기서 35년간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을 가르쳤다. 1918년 리옹 대학 주도로 일본에 대학 사절단이 갈 때에도 동행했고, 리옹 대학이 중법대학을 만들 때에도 실무를 맡았다. 이후 별다른 학문적 업적을 남기지 못한 쿠랑은 프랑스에서는 망각되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오늘날

<sup>24</sup> 쿠랑에 대해서는 부세(1986), 이기원(2008), 번역된 쿠랑의 글들(2010)과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에서 출간한 평전(2017)을 참조. 다니엘 부세가 쓴 쿠랑에 대한 글은 쿠랑의 선구자적 업적을 찬양하는 다소 전형적인 기념비적 서술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쿠랑의 한국학 연구에 대한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sup>25</sup> 쿠랑은 프랑스 견직물업의 본산인 리옹의 대학교수답게 한국의 견직물을 문명의 증거로 들며 이렇게 말했다. “어떤 국가에 비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또한 그 문명이 이미 독특한 세련미와 섬세함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상징이다.”(쿠랑, 2010: 24)

재발견되고 있다.

#### IV. 원부를 통해 본 프랑스 동양학 장서의 일반적인 구매 양태 분석

이상에서 경성제대 도서관에 소장된 프랑스어 동양학 장서들에 얽힌 네트워크들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조사를 마치고 다시 경성제대 장서로 돌아가니 동양학 관련 장서들을 새롭게 가려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전 연구에서 결론 내렸던 것보다 이 책들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로 책 제목과 도서관의 주제 분류에 의존했던 이전 프로젝트의 전수 조사에서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학 관련 책으로 분류했던 주요 책들은 200여 종이하였지만, 서구 동양학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치고 다시 검토를 시작하니 언어학, 문헌학, 여행기, 고고학 보고서, 각종 정기간행물, 다국어 번역본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책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언어별로 쌓이면 경성제대 장서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책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선택되고 입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서 구매 상황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구매 장부인 도서 원부가 장서 형성 과정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목록을 참조하여 어떠한 논리로 책들을 구입했는지 알 수가 없다.<sup>26</sup> 그러나 적어도 일정한 구매 양태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서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다음 논문에서는 원부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동양학 저서들의 입수 과정 일반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원부는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었다. 도서관 초기 장서 형성 단계인 1933년까지는 책 제목, 가격, 도착일자, 구입처 등만 표기한 일괄 구매 목록 형태로 기록

<sup>26</sup>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원부는 동양서와 서양서로 나뉘어 작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26년부터 1937년까지 서양서 원부 1권에서 44권까지를 조사하였다.

되다가, 장서가 어느 정도 구비된 1933년부터는 표기 방식이 바뀌어서 일반 구입이 아닌 일부 도서의 경우 용처가 각 강좌명으로 기입되어 있다.<sup>27</sup> 1933년에 이르면 십여만 권에 달하는 책이 구입되어 장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다. 이후 구입되는 책들은 수도 훨씬 적고 주문 형태 역시 일괄 주문보다 개별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반부 원부를 보면 용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동양학 도서들은 대부분 국사, 동양사, 고고학, 그리고 드물지만 미학(예술 관련 서적들) 강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초창기에는 책을 대량으로 일괄 주문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권의 책들이 도착했다. 초기 원부에서는 책 상자들이 뒤섞였는지 언어도 주제도 가지각색인 책들이 연이어 원부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목록을 보면 처음에는 주로 주제별로 책들이 대량 구입된다. 동양학 관련 책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1926년에서 33년 사이에 일괄 구입되는데, 처음에는 주로 동방 여행기들과 고고학 책들이 먼저 등장한다. 특히 근간에 벌어진 극동 관련 고고학 발굴 관련 보고서들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이란 발굴 보고서(Morgan, 1905), 펠리오의 둔황 석굴 보고서(Pelliot, 1920~24), 스갈랑(Victor Segalen)의 중국 발굴 보고서(Segalen, 1923~24) 등이 1927년에 한꺼번에 구입되기도 했다.

특히 16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구의 여행기나 체류기들은 지명도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구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33년 이후 원부를 보면 이러한 극동 여행기를 주문한 것은 대부분 국사 강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귀중본으로 분류된 고서들도 다수 입수되었다.<sup>28</sup> 먼저 여행기를 보면 다양한 판본의 마르코 폴로 여행기를 비롯하여, 당대 여행기 자료들을 집대성한 프랑스 계몽사상가 레날(G. T. Raynal)의 『두 인도의 역사』(Raynal, 1780),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관리들의 여행기(Renneville, 1702; Van Braam

<sup>27</sup> 원부 1권에서 20권(1933)까지는 한 권당 장서 5,000권의 구매 목록이 일괄적으로 담겨 있다. 21권부터는 주문별, 강좌별로 기입되어 있어서 한 권당 기입된 장서의 수가 훨씬 적다. 1933년 이후 원부라 해도 주문처가 모두 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sup>28</sup>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의 귀중본 컬렉션(서양서)은 <http://rosetta-app.snu.ac.kr:1801/delivery/action/collectionViewer.do?collectionId=52912637&operation=viewCollection> 참조.



Houckgeest, 1797-8)처럼 18세기에 발간된 오래되고 유명한 탐사기들이 있다. 19세기의 경우 19세기 말 '극동'이라는 표현을 안착시킨 부스케(G. Bousquet)나 피모당(C-E. de Pimodan)의 극동여행기(Bousquet, 1877; Pimodan, 1900)를 비롯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교관들의 극동 체류기(Moges, 1860)까지 잘 구비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말한 예수회 수사 뒤 알드의 중국사<sup>29</sup>를 비롯하여 일본에 간 예수회 선교사들이나 정착 교회의 기록들도 빠짐없이 사 모았다. 몇 개만 예로 들면 베이징 선교사들이 교황에게 보낸 중국에 대한 보고서(Missionaires de Pékin, 1776-88), 선교사들의 서신기록(Dortous de Mairan, 1777; Le Comte, 1700), 중국의 신앙 체계에 관하여 교황에게 제출한 보고서(Marin, 1702; Missions etrangeres, 1700)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출간된 일본에 관한 학술서나 예술품 목록을 수록한 서지학 서적들과 목록집들 역시 다수 구입했다. 앞서 말한 파쥬의 목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가 편집한 세 종류의 서지학 백과사전인 『중국서지(Bibliotheca Sinica)』, 『일본서지(Bibliotheca Japonica)』, 『인도차이나서지(Bibliotheca Indosinica)』였다. 1927년에 구입된 이 책들에서는 서구에서 1920년 이전까지 중국, 일본, 인도차이나에 대해서 출간된 거의 모든 연구들의 목록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관련 기록만 2만 여 건에 이르며, 제일 나중에 발간된 인도차이나 백과전서는 EFEO를 통해 출판되었다. 또한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극동 도서 목록(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réens, japonais, etc)이나 둔황 석굴 관련 소장 자료 목록(Collection de Pelliot)도 구입되었다. 이러한 목록들은 서구의 동양학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책을 주문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꾸로 프랑스의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소장한 일본 관련 물품(일본도, 일본화, 일본 화폐 등)에 대한 목록들 역시 입수되었다.

뒤로 갈수록 중국이나 일본에 관련된 주제의 책을 역사, 지리, 정치, 외교, 예술 할 것 없이 일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동양학 관련 서적들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들어왔다. 이처럼 일괄 구입되는 또 다른 주제는 언어학인데,

<sup>29</sup> 정성제대 도서관은 뒤 알드의 책을 불어, 영어, 독일어 판본으로 모두 구비하고 있다. 모두 18세기에 출간된 고서들이다.

동양 관련 언어학 책을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드 로니의 일본어 책이나 레뮈자의 중국어 책들을 비롯한 초기 동양학 책들도 함께 들어왔다. 1928년에 구입한 드 로니(27종)의 책들은 저자명으로 주문되었는지 20여 종이 한꺼번에 들어왔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코르디에(17종)나 펠리오(12종) 책들의 경우 주로 다른 주제들과 섞여서 한두 권씩 부분적으로 들어왔다(부록 1, 2 참조).<sup>30</sup> 한국과 관련된 책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것은 1932년인데, 여행기, 문법, 역사책, 선교사 기록들이 뒤섞여 들어왔다. 독립운동가 서영해가 프랑스에서 발간한 민족주의 소설인 『한국의 삶에 대하여(Autour d'une vie coréene)』도 여기에 섞여서 구입되었다(서영해, 1929). 하지만 서양 작가들이 대부분 극동을 한 덩어리로 취급했기에 책들 역시 뒤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양학 정기 간행물도 1926~28년에 대량으로 들어온다.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와 같은 영국의 주요 동양학 학회뿐만 아니라 EFEO에서 발간한 기관지와 학술잡지(Bulletin de l'EFEO, Études asiatiques), 일불회관에서 발간한 기관지(*Bulletin de la Maison franco-japonais*)를 비롯하여 *Journal Asiatique*, *T'oung Pao*, *Archives d'études orientales*와 같은 주요 학술 잡지들이 구입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메 박물관의 부정기 학회지(*Études d'orientalisme*), 국제동양학회 학회지, 기타 프랑스 동양학회의 간행물들도 이때 과월호까지 일괄적으로 구입되었다. 리옹에서 열린 지방 동양학 학회문건들(Congrès provincial des orientalistes, 1878)까지 구입한 것이 이채롭다. 이 학술 잡지들은 이후 다른 잡지들과 함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일괄 구입되고 있다.

구입처는 대부분 일본이나 경성의 수입회사로 기록되어 있지만,<sup>31</sup> 대학이나 개인 기증도서들 역시 종종 눈에 띈다. 프랑스서의 경우 일불회관이 꾸준히 자신들의 학회지와 출판물들을 보냈다. 파리 국제 대학촌에 일본관을 만들 때의 자료나 일불회관 관장이었던 레비의 책, 토미이 자작에 대한 찬사, 그리고 불어로 출간한 일본 저자들의 극동 관련 연구서 등은 이 기관이 직접 보낸 것들이다.

30 구매 양태를 보여주는 예로 저자별로 표 두 개를 부록으로 달았다.

31 구입처는 대부분 三井物産, 白水社, 國際書房, 大阪丸善.

## V. 앞으로의 연구 과제: 동양학의 초국가적 상호참조체계

지금까지 경성제대 장서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는 결코 경성제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도서 구성 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에 개입했다. 원부 분석에서 보았듯이 도서관의 구매 관행에 따라 많은 책들이 일괄 구매되었다. 게다가 그동안 발전한 책의 역사 혹은 독서의 역사가 규명하다시피 책의 내용과 그 책이 어떻게 읽히느냐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이다. 식민지 시대 베트남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제국의 검열이 '무해'하다고 판단하여 그냥 지나친 서양 고전문학 작품들을 식민지인들이 저항의 매개체로 '다시 읽기(re-read)' 했음을 보여준다(Do, 2017). 따라서 우리는 장서의 구성과 내용으로부터 그 기관(경성제대)의 학문적, 정치적 성격이나 장서의 활용 방식을 곧바로 추출해 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지식이나 문화 체계의 형성에 책을 중심으로 한 참조 체계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sup>32</sup> 이후 연구들은 도서관이나 개인 서가의 책 목록, 출판업자들의 공급 목록, 금서 목록, 베스트셀러 목록 등을 연구하며 텍스트와 지식의 유통과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다. 장서 목록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능했던 지적 우주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전 세계의 도서 자료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장서의 구성에는 정치적 의도, 학자들의 인맥, 우연적 요소, 도서관의 구매 관행, 기증과 증여, 예전의 학문적 전통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장서가 일단 구비되면 이후의 학문 집단은 그 자장 내에서 연구와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자가 이로부터 나아가고 싶은 연구 주제는 동양학을 이루는 초국가적인 상호참조체계를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다나카의 『일본 동양학의 구조』는 오리엔탈리

<sup>32</sup> 서양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의 책들 참조. 번역된 것으로는 단턴(2008)에 있는 책의 역사 관련 장들 참조.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Baratin & Jacob(1996) 참조.

즘을 둘러싸고 서구와 일본 간에, 그리고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 간에 (비록 불균형할지라도) ‘대화’가 벌어졌다고 말한다. ‘아시아’는 서양 학자들과 동양 학자들 사이에서 대화와 경쟁의 영역이었으며, “동양사와 지나 담론이 합쳐진 것은 일본을 아시아에 대한 권위자로 확립하고 서양과 대화를 가지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다나카, 2004: 54). 동양사를 확립한 시라토리의 학문적 탐구 과정 역시 서양 동양학자들에 대한 비판 및 보충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다나카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에 대한 탐색은 서양 동양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내용을 둘러싼 경쟁으로 전화해 갔다. 아시아는 서양 동양학자와 일본학자 각각의 내러티브에 기원과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경쟁적 영역이 되었다”(다나카, 2004: 112). 즉,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서구가 동양에 대해 부과한 것이 아니라, 동서양 담론들 간에 경쟁, 수용, 접합이 다각적으로 벌어지는 융합적·변증법적 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이드식의 담론 중심의 오리엔탈리즘 연구뿐만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과 사회적·학문적 교류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생가라벨루의 연구들은 기존의 기념비적 제도사나 담론 중심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을 보완하여 오리엔탈리즘의 사회사적 맥락을 규명하려 했고, 다나카의 책 역시 일본 내의 학자, 제도,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다나카의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실제 그의 연구는 일본 내에 그칠 뿐, 그가 말하듯이 서구와 일본 사이,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의 대화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 서평자가 말하듯이 밝혀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서구’와 일본의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구의 어떠한 특정 저자, 책, 조직들이 이 대화에 참여했느냐 하는 것이다(Fujitani, 1994).

하나의 연결 고리로 1924년 도쿄에 설립된 동양문고(東洋文庫)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서구 동양학의 수용뿐만 아니라 일본 동양학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했다. 다나카에 따르면 시라토리는 유럽을 방문한 후 다양한 동양학 연구 기관들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중심의 학회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1907년 동양협회(東洋協會)를 설립하고 『동양학보(東洋學報)』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1924년에 설립된

동양문고를 통해 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독자적인 동양학을 개척하고자 했다(다나카, 2004: 331). 이 동양문고의 기반은 당시 중국통으로 손꼽혔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모리슨(G. E. Morrison)으로부터 구입한 2만 4천 권가량의 극동문고였다.<sup>33</sup> 동양문고가 이후 일본 극동학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된 만큼 모리슨의 극동문고 목록은 다른 장서 목록들과 비교·대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부를 보면 동양문고는 경성제대에도 자신의 출간물들을 꾸준히 보냈다.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경성제대와 식민지 조선으로 이어진 이 '하부 오리엔탈리즘(sub-orientalism)', 혹은 제밀 아이딘(Cemil Aydin)의 표현에 따르자면 "동양인에 의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by Orientals)"(Aydin, 2005)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대화'가 관여했다. 본 연구는 부족한나마 이 대화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징검다리를 놓고자 했다. 경성제대 동양서 장서 연구가 다른 장서 연구들과 접합되어 광범위하게 교차 대조 및 비교 연구가 가능해진다면 서구, 일본,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어진 복잡한 상호참조체계를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sup>33</sup> 그 목록은 동양문고(1924) 참조. 영어와 기타 외국어로 나뉘어 있음.

## 부록

부록 1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의 경성제대 도서관 장서 목록 (저서, 편서)

원부번호	Call No.	제목	출판 연도	구입 연도
14434	G157 3	Guide de la conversation japonaise	1867	1926
42076	G150 4	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langue japonaise	1856	1927
49752	G240 11	Quelques observations sur la langue siamoise et sur son écriture	1855	1927
50433	E490 1	Notice sur l'écriture chinoise et les principales phases de son histoire	1854	1928
61146	F110 22	Anthologie japonaise: poésies anciennes et modernes des insulaires du Nippon	1871	1928; 일괄주문
61147	T900 29	Botanique du Nippon	1872	상동
61148	H210 74	La Civilisation japonaise	1861	상동
61149	G150 7	Discours prononcé à l'ouverture du cours de japonais à l'Ecole impériale et spéciale des Langues orientales	1863	상동
61150	G153 10	Eléments de la grammaire japonaise (langue vulgaire)	1873	상동
61152	G155 3	Manuel de la lecture japonaise	1859	상동
61153	T780 208	De la méthode ethnographique pour servir d'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race jaune	1871	상동
61154	K100 81	Notices sur les îles de l'Asie orientale, extraites d'ouvrages chinois et japonais, et traduites pour la première fois sur les textes originaux	1861	상동
61155	G150 8	Premières notions de langue japonaise parlée et écrite	1884	상동
61156	G152 5	Remarques sur quelques dictionnaires japonais	1858	상동
61157	G157 9	Textes faciles et gradués en langue japonaise	1873	상동
61158	W700 2	Traité de l'éducation des vers à soie au Japon, traduit pour la première fois du japonais	1871	상동
61159	W700 3	Trattato sull'allevamento dei bachi da seta e sulla coltura del gelso (이탈리아어 번역본)	?	상동
62798	G157 8	Cours pratique de langue japonaise	1903	1928
62799	G152 2	Dictionnaire des signes ideographiques de la Chine avec leur prononciation usitée au Japon	1867	1928
64179	E350 36	La Porcelaine chez les chinois et japonais	1856	1928

원부번호	Call No.	제목	출판 연도	구입 연도
64737	T780 178	Les Coréens	1886	1929
92215	H200 45	Variétés orientales	1872	1932
92219	K120 16	Sur la géographie et l'histoire de la Corée	1868	1932
115389	K100 84	Etudes asiatiques de géographie et d'histoire	1864	1937
138365	895.1 R733t	Textes chinois : anciens et modernes	1874	1937
아래는 일본어 번역본				
	3707 5	日本文集	1863	
	G153 11	日本語考	1865	

## 부록 2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의 경성제대 도서관 장서 목록 (저서, 편서)

원부	Call No.	제목	출판 연도	구입 연도
5723	K100 9	Ser Marco Polo: notes and addenda to Sir Henry Yule's edition, containing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and discovery (편집본, 번역본)	1920	1926
11447	귀K100 15	The Book of Ser Marco Polo: the Venetian, concerning the kingdoms and marvels of the East (편집본, 번역본)	1926	1926
21813	H200 30 1	Mélange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orientales	1914	1927
26433	A451 2	Bibliotheca Japonica	1912	1927
26434	A453 1	Bibliotheca Sinica	1904	1927
40397	H230 41	La Chin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1910	1927
40398	T780 150	Les Mo-sos	1908	1927
49429	H200 53	Les Débuts de la Compagnie royale de Suède en Extrême Orient au XVIIIe siècle	1889	1927
66539	A459 4 1	Bibliotheca Indosinica	1912	1927
67996	M550 145	L'expédition de Chine de 1857-58	1905	1927
77058	K070 23	Les Voyages en Asie au XIVe siècle du bienheureux frere Odoric de Pordenone, religieux de St.-Francois	1891	1927
91072	K100 32	Les merveilles de l'Asie	1925	1932
92271	大 K100 41	Description d'un atlas sino-coréen	1896	1932
93897	K100 43	Situation de Ho-lin en Tartarie	1893	1932
97152	K110 58	De la situation du Japon et de la Corée	1898	1932



투고일: 2017년 11월 16일 | 심사일: 2017년 12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3일

## 참고문헌

- 권윤경. 2015.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집, 209-241.
- 다나카, 스테판.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문학과지성사.
- 문젤로, 데이비드. 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서울: 휴머니스트.
- 박상수. 2003. “한학에서 사회과학으로.” 『한국중국학회』 48, 395-414.
- 박성진. 2016.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여정,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 『東洋學』 64, 151-190.
- 박성진. 2017.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지형학: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 (문헌) DB 구축프로젝트>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양학』 68, 65-94.
- 박흥식·권윤경·문수현·박재욱·이주영. 2014. 『고문헌 도서의 주제, 언어별 장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콜랭드 플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 모리스 쿠랑 평전과 서한자료집』. 서울: 소명출판.
- 부세, D. 1986.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上).” 『동방학지』 51, 153-194.
- 부세, D. 1986.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下).” 『동방학지』 52, 83-121.
- 블레스텍스, 프레데릭. 2001.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울: 청년사.
- 송덕호. 2000. “19 세기의 프랑스 문학에 나타난 극동.” 『세계문학비교연구』 3, 111-135.
- 송태현. 2013. “중국고아와 오리엔탈리즘.” 『세계문학비교연구』 44, 189-210.
- 이기원. 2008. “Les travaux sur Maurice Courant en Coree.” 『서지학연구』 40, 247-268.
- 이동윤. 1980. 『프랑스인의 智慧』. 서울: 正音社.
- 이영미. 2012. “꾸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학연구』 28, 1-32.
- 이향철. 2001. “유럽인의 일본인식과 지식체계로서의 일본학의 형성과 전개.” 『동방학지』 112, 109-162.
-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87, 39-85.
- 쿠랑, 모리스 외. 2010. 『모리스 꾸랑의 서울의 추억, Souvenir de Séoul』. 서울: 서울역사

## 박물관.

- 클라크, J. J. 2004.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서울: 우물이 있는 집.
- Aydín, Cemil. 2005. "Orientalism by the Orientals?: The Japanese Empire and Islamic Studies(1931-1945)." *Ýslám Araþýrmalary Dergisi* 14, 1-36.
- Baratin, Marc and Christian Jacob, eds. 1996. *Le pouvoir des bibliothèques*. Paris: Albin Michel.
- Barth, Volker and Roland Cvetkovski. 2015. *Empires and Encounters*. London: Bloomsbury.
- Beillevaire, Patrick. 1992. "French Approaches to Japanese Studies: On Their Links with Intellectual Milieus and Traditions." *Othernesses of Japan: Historic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Japanese Studies in Ten Countries*. Munich: Iudicium verlag.
- Beillevaire, Patrick. 1993. *Le Japon en langue française: Ouvrages et articles publiés de 1850 à 1945*. Paris: Éditions Kimé.
- Betts, Raymond F. 2005[1961]. *Assimilation and Association in French Colonial Theory, 1890-1914*. Lincoln: Nebraska Univ. Press.
- Bowd, Gavin & Daniel Clayton. 2005. "Tropicality, Orientalism, and French Colonialism in Indochina." *French Historical Studies* 28(2), 297-327.
- Breckenridge, Carol A. and Peter van der Veer, eds. 1993. *Orientalism and the Post-colonial Predicament: Perspectives on South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onklin, Alice. 2013. *In the Museum of Man: Race, Anthropology, and Empire in France, 1850-195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Dartigues, Laurent. 2003. "La production conjointe de connaissances en sociologie historique: Quelles approches? Quelles sources? Le cas de la production orientaliste sur le Vietnam(1860-1940)." *Genèses* 43, 53-70.
- Davidann, Jon Thares. 2007. "Japanese Response to Orientalism." *Cultural Diplomacy in U.S.-Japanese Relations, 1919-1941*. NY: Palgrave Macmillan US.
- Do, Tess. 2017. "From Author to Saint: the Appropriations of Victor Hugo and Les Misérables in Colonial Vietnam." *Contemporary French Civilization* 42(1), 113-129.
- EFEO. 1908. "Rapport au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sur le développement

-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de 1902 à 1907."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8(1), 306-331.
- EFEO. 1921.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depuis son origine jusqu'en 1920: historique général."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21(4), 1-41.
- EFEO. 2014. *Un siècle d'histoir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au Japon*.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Paris: EFEO.
- Fabre-Muller, Bénédicte, Pierre Leboulleux, and Philippe Rothstein. 2014. *Léon de Rosny: de l'Orient à l'Amérique*. Villeneuve-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Fenet, Annick, Pierre Sylvain Filliozat, and Eve Gran Aymerich. 2007. "La Société asiatique, une société savante au coeur de l'orientalisme français." *Les nouvelles de l'archéologie* 110, 51-56.
- Frank, Bernard. 1973. "Les études Japonaises." *Journal Asiatique* 1973, 255-295.
- Frank, Bernard and Shôkichi Iyanaga. 1974. "La Maison franco-japonaise: son histoire, ses buts, son fonctionnement." *Nichifutsu Bunka* 31, 1-103.
- Fujitani, Takashi. 1994. "Review of Japan's Orient."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2), 547-551.
- Garnier, Catherine. 1999. "La linguistique japonaise en France de 1825 à nos jours." *Cipango* 8, 259-288.
- Hervouet, Yves. 1981. "Paul Demiéville et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69(1), 1-29.
- Laffey, John F. 1969. "Les racines de l'impérialisme français en Extrême-Orient."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16, 282-99.
- Laffey, John F. 1975. "Education for Empire in Lyon during the Third Republic."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15(2), 169-184.
- Laurens, Henry. 2004. "L'orientalisme français: un parcours historique." *Penser l'Orient: Traditions et actualité des orientalismes français et allemand*. Beyrouth, Liban: Presses de l'Ifpo.
- Marquet, Christophe. 2014. "Le développement de la japonologie en France dans les années 1920: autour de la revue Japon et Extrême-Orient." *Ebisu* 51, 35-74.

- Minear, Richard. 1980. "Orientalism and the Study of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9(3), 507-517.
- Mouer, Ross. 1983. "Orientalism as Knowledge: Lessons for Japanologists." *Keio Journal of Politics* 4, 11-31.
- Nihon Furansugo Furansu Bungakkai. 1973. *Cent ans d'études françaises au Jap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Origas, Jean-Jacques. 1985. "Les études japonaises en France." *Japanese Studies in Europe, Directory Series VII*. Tokyo: Japan Foundation.
- Pelletier, Philippe. 2011. *L'Extrême-Orient: l'invention d'une histoire et d'une géographie*. Paris: Gallimard.
- Pierre-Sylvain, Filliozat. 2010. "L'Asie à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et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Comptes rendu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154, 1533-1543.
- Pouillon, François. 2008. *Dictionnaire des orientalistes de langue française*. Paris: Karthala.
- Rageau, Christiane Pasquel. 1989.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ou l'orientalisme vivant en France." *Bulletin d'informations de l'Association des Bibliothécaires Français* 142, 9-14.
- Shinobu, Chûjô, Nguyễn Ilan, and Dhorne France. 2001. "Paul Claudel et la fondation de la Maison Franco-japonaise." *Ebisu* 26, 7-34.
- Siary, Gérard. 1993. "De la mode au modèle: les images successives du Japon en Europe au XIXe siècle et au XXe siècle." *Historiens & géographes* 342, 103-121.
- Siary, Gérard. 2001. "Images et contre-images de l'extrême-orient au Japon et en Occident." *Revue de littérature comparée* 297, 67-77.
- Singaravélou, Pierre. 2000.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ou l'institution des marges (1898-1956): Essai d'histoire sociale et politique de la science coloniale*. Paris: Harmattan.
- Singaravélou, Pierre. 2009. "L'enseignement supérieur colonial: Un état des lieux." *Histoire de l'éducation* 122, 71-92.
- Singaravélou, Pierre. 2011. *Professer l'Empire: Les «sciences coloniales» en France sous la IIIe République*.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 Tilly, Helen. 2011. *Africa as a Living Laboratory: Empi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cientific Knowledge, 1870-195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Valliant, Robert B. 1974. "The Selling of Japan. Japanese Manipulation of Western Opinion, 1900-1905." *Monumenta Nipponica* 29(4), 415-438.
- Wasserman, Michel. 2014. "La fondation de l'Institut franco-japonais du Kansai(1927)." *Ebisu* 51, 137-162.

#### 본문에서 언급된 경성제국대학 소장본들

- Anonymous. 1924. *Catalogue of the Asiatic Library of Dr. G. E. Morrison: now a part of the Oriental Library*, 2 vols. Tokyo: The Oriental Library.
- Bousquet, Georges. 1877. *Le Japon de nos jours et les échelles de l'Extrême-Orient*. Paris: Hachette.
1878. *Congrès provincial des orientalistes français*. Paris: Maisonneuve et Cie.
- Cordier, Henri. 1878-1895. *Bibliotheca sinica: 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pire chinois*. Paris: E. Leroux.
- Cordier, Henri. 1912. *Bibliotheca japonica: 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pire japonais*. Paris: E. Leroux.
- Cordier, Henri. 1912-15. *Bibliotheca Indosinica: 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a peninsule indochinoise*. Pari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Du Halde, Jean-Baptiste. 1735.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Paris: [s.n.].
- Keijo Imperial Univ. Lib. ed. 1934.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 Keijo: Keijo Teikoku Daigaku Toshokan.
- Labbé, Marin. 1702. *Lettre de M. Marin Labbé ... au Pape*. Anvers: Chez les Heritiers de Jean Keerberg.
- Le Comte, Louis. 1700. *Lettre du R. Père Louis le Comte, de la Compagnie de Jesus*. Paris: [s.n.].
- Lévi, Sylvain et al. eds. 1929-. *Hôbôgirin: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u bouddhisme d'après les sources chinoises et japonaises* (法寶義林). Tôkyô: Maison

franco-japonaise.

Mairan, Dortous de. 1770. *Lettres au R. P. Parrenin, jesuite, missionnaire à Pekin.*

Paris: Imprimerie Royale.

Missionnaires de Pekin. 1776-1788. Mémoires concernant l'histoire, les sciences, les arts, les moeurs, les usages, & c. des Chinois. Paris: Nyon.

Missions étrangères. 1700. *Lettre de messieurs des Missions étrangères au Pape sur les idolatries et les superstitions chinoises.* Cologne: [s.n.].

Moges, Alfred de (marquis de). 1860. *Souvenirs d'une ambassade en Chine et au Japon en 1857 et 1858.* Paris: Hachette.

Morgan, M. J. de. 1905. *Delegation en Perse: Memoires publiés sous la Direction de M. J. de Morgan.* Paris: E. Leroux.

Pages, Leon. 1859. *Bioliographie japonaise, ou, Catalogue des ouvrages relatifs au Japon qui ont été publiés depuis le XV<sup>e</sup> siècle jusqu'à nos jours.* Paris: B. Dupart, 1859.

Pages, Leon. 1868. *Dictionnaire japonais-français: tr. du dictionnaire japonais-portugais.* Paris: [s.n.].

Pelliot, Paul. 1920-1924. *Les Grottes de Touen-houang: peintures et sculptures bouddhiques des épopées des Wei, des T'ang et des Song.*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Pimodan, Claude-Emmanuel de. 1900. *Promenades en Extrême-Orient.* Paris: Champion.

Raynal, Guillaume Thomas. 1780-. *Histoire philosophique et politique des établissements et du commerce des européens dans les deux Indes.* Paris: Chez Berry.

Renneville, René-Auguste-Constantin de. 1702. *Recueil des voyages qui ont servi à l'établissement et aux progrès de la Compagnie des Indes orientales, formée dans les Provinces Unies des Pays-Bas.* Amsterdam: Estienne Roger.

Segalen, Victor, Gilbert de Voisins & Jean Lartigue. 1923-1924. *Mission archéologique en Chine.* Paris: P. Geuthner.

Seu, Ring-hai(서영해). 1929. *Autour d'une vie coréenne.* Paris: Editions Agence Korea.

Van Braam Houckgeest, André Everard. 1797-8. *Voyage de l'ambassade de la Compagnie des Indes Orientales Hollandaises.* Amsterdam: [s.n.].

## Abstract

## French Orientalism and the Birth of the Extrême-Orient: The Networks of Intellectual History Involved in the French Orientalist Book Collection in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Library

Yun Kyoung Kw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part of a joint research of the books in Western languages collected by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Library from 1926 to 1939. Focusing on the books of Orientalism in French,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study for excavating the complex intellectual networks involved in this collection. It starts from depicting how the knowledge about colonies, hitherto scattered and unorganized, was transformed into the *sciences coloniales* in Fran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ithin this context, traditional Orientalism, which had been a realm of amateur scholars, diplomats, and colonial officials, was revamped as an academic discipline within universities. In this newly institutionalized setting, East Asia (China, Japan, Korea, Indochina) was defined as a new sub-category of Orientalism, that is, the *Extrême-Orient* (Far East). For supporting this newly-fangled field of study, academic associations and networks were established in France, Indochina and Japan.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analyze how this history became embedded in the book collection of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Library, suggesting future research agendas.

**Keywords** | French oriental studies, orientalism, *Sciences coloniales*, Far East (Extrême-Orient), Keijō Imperial University Library, sub-orientalism, EFEO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Maison Franco-Japonais